

한국판 기본 심리적 욕구에 기반한 대인관계 행동 척도(IBQ)의 타당화*

류 지 영

신 희 천[†]

김 은 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교수

교수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의 기본 심리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욕구-지지적인 대인관계 행동과 욕구-좌절적인 대인관계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인 대인관계 행동 척도(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IBQ)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IBQ는 자율성-지지 행동, 유능감-지지 행동, 관계성-지지 행동 그리고 자율성-좌절 행동, 유능감-좌절 행동, 관계성-좌절 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총 505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척도와 동일하게 문항제거 없이 한국판 IBQ는 4문항씩 6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IBQ는 한국인에게 사용하기에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도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욕구-지지적인 행동은 행복 관련 지표와 욕구-좌절적인 행동은 불행 관련 지표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기본 심리적 욕구, 욕구-지지적 행동, 욕구-좌절적 행동, 대인관계 행동

* 본 연구는 류지영(2017)의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 및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율곡관 506호

Tel : 031-219-2747, E-mail : hcshin@ajou.ac.kr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다”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은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성장과 좌절을 경험한다(김혜남, 2006; Deci & Ryan, 1985). 또한 대인관계는 인간의 동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Deci & Ryan, 1985), 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론으로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꼽을 수 있다. SDT(Deci & Ryan, 1985)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적 동기와 능동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흥미로운 행동을 지향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며, 대인관계 및 사회집단과의 연결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SDT에서는 인간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되면 인간의 내적 동기는 더욱 활성화된다고 가정한다(Deci & Ryan, 2002).

인간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중 먼저, 자율성(autonomy) 욕구는 자신의 관심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는 욕구로 ‘외적 자원이나 영향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independence)과 달리(Deci & Vansteenkiste, 2004),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때도 자기 주도성(self-initialing)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능감(competence) 욕구는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효율성을 느끼고 자신의 역량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욕구로, 단지 기술이나 역량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를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의미한다(Deci & Ryan, 2002). 마지막으로, 관계성(relatedness)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끼고 연결감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하며, 특정한 형태의 달성이 아닌 교감(communion)이나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함께한

다는 심리적 감각과 관련이 있다(Deci & Ryan, 2002).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다양한 문화권에 걸쳐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eci & Ryan, 2000, 2002; Sheldon, 2011). 예를 들어,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은 안녕감과 긍정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특히 정서적 측면인 주관적인 행복감과 자기실현의 주요한 특질인 활력과 심리적 유연성, 성인애착, 그리고 대인관계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석만, 2008; Rowe, Walker, Britton, & Hirsch, 2013; Ryan & Deci, 2000). 반면, 기본 심리적 욕구의 좌절은 성장, 잠재력 발전을 지연시키며,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tholomew, Ntoumanis, Ryan, Bosch & Thøgersen-Ntoumani, 2011; Sheldon & Filak, 2008). 기본 심리적 욕구는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관계, 부부간의 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교사-학생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대인관계 혹은 환경 맥락에 따라 만족되거나 좌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구장희, 안도희, 2015; 한송이, 장석진, 2015; Deci & Ryan, 2000).

이처럼, 여러 연구를 통해 기본 심리 욕구 만족 혹은 좌절의 중요성이 보고되면서 Deci와 Ryan(2000, 2002)의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이 국내외에서 개발되었다. 먼저, Ryan과 Deci이 개발하고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및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기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라는 세 가지 하위척도를 측정하는 각각 6문항, 즉,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자율

성 하위척도는 학업적 자기조절 척도와 관련이 있고, 유능감 척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관련이 있으며, 관계성 척도는 학교생활적응 척도, 부모 관계성 척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욕구를 만족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La Guardia, Ryan, Couchman과 Deci (2000)가 개발한 욕구 만족 척도가 있다. 해당 척도는 기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각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욕구를 충족시켜 준 사람이 누구인지(예. 아버지, 어머니, 교사, 친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이후 이민희, 정태연(2009)은 이 척도를 아버지, 어머니, 교사, 친구로부터의 욕구 만족척도라는 네 가지 소검사로 구성된 척도로 수정하였다. 또한 한소영과 신희천(2009)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고, 정교영과 신희천(2010)은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자녀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상담 영역에서 상담자(임지영, 김지현, 2015)와 내담자(한소영, 신희천, 2010)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도 개발되었다.

이러한 척도들은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개발 및 타당화가 되었으며, 여러 관계적 맥락에서 개인이 느끼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본 심리적 욕구의 좌절을 살피는 데 있어, 각 만족도와 좌절도의 문항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총점을 계산하였기에 이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도와 좌절도를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가령, 부모의 욕구-지지적인 행동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도연, 2010; 정교영, 신희천, 2011a)와 동일한 맥락에서 부모의 통제적인 욕구-좌절적인 행동은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김시정, 2015; 전유미, 2016) 보고하였는데, 이는 만족 및 좌절을 독립적으로 살펴본 것이 아니라 척도를 역산함으로써 다른 결과이지만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는 식의 연구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정교영, 신희천, 2010), “아버지는 나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편이다.”(이민희, 2007), “나는 ~과 있을 때, 나는 특정 방식으로 통제받고 억압을 받는다고 느낀다.”(La Guardia et al., 2000) 등의 문항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문장은 부모가 물리적으로 넉넉한 지원을 함에도 응답자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무능감을 느끼거나 폄하된다는 무능감을 느낄 수 있다. 욕구 만족의 부재와 욕구 좌절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Costa, Ntoumanis & Bartholomew, 2015), 욕구 만족 척도와 욕구 좌절 척도를 대인관계 능력 및 부정적 관계경험 척도 간의 상관성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욕구 좌절은 욕구 만족이나 욕구 부재보다 부정적 관계경험을 더 정확히 예측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욕구 만족과 욕구 좌절은 서로 부적 상관성을 띠지만, 독립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욕구가 좌절된 상태는 단순히 욕구 만족이 결여되거나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Bartholomew et al., 2011; Sheldon & Filak, 2008). 비슷한 맥락에서, 낮은 욕구 지지와 높은 욕구 좌절 간의 관계는 양극단의 개념이

아니다. 낮은 욕구 지지가 반드시 욕구 좌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욕구 좌절은 낮은 욕구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가령, 식물이 햇빛이나 물이 없다면(욕구 지지의 결여 혹은 부재) 자라나지 못하고 서서히 죽겠지만, 소금물을 주게 된다면(욕구 좌절) 더 빠르게 말라 죽을 수 있다(Vansteenkiste & Ryan, 2013).

이처럼 낮은 욕구 만족이 필연적으로 욕구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낮은 욕구 좌절이 필연적으로 욕구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기본 심리적 욕구 좌절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척도들이 개발되었는데(Bartholomew et al., 2011), 가장 대표적인 척도로는 Chen 등(2015)이 개발한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Frustration Scale(BPNSFS)이 있다. 또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좌절이 사회적 상호작용 혹은 대인관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Deci & Ryan, 1985)을 반영하여 욕구 만족을 지지하는 타인의 행동과 욕구 만족을 좌절시키는 타인의 행동, 즉, 욕구-지지적인 대인관계 행동과 욕구-좌절적인 대인관계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들도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Haerens 등(2013)이 개발한 욕구-지지적인 교수 행동 척도와 이를 수정하여 Van den Berghe 등(2013)이 개발한 욕구-좌절적인 교사의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인 Observed Teaching Behavior(OTB)와 정교영과 신희천(2011b)이 개발한 욕구-지지적이고 욕구-좌절적인 부모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한국판 부모 양육 행동 척도(Korean-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K-PSCQ)가 있다.

이 척도들은 욕구-지지적인 행동과 욕구-좌절적인 행동을 구분하여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의 한계점도 지닌다. 먼저, OTB와

K-PSCQ은 교수 행동 혹은 부모 양육 행동과 같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OTB의 척도는 교사의 욕구-지지적인 혹은 좌절적인 행동의 빈도 수준을 4점 척도(1=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4=언제나 관찰된다)로 측정하고, K-PSCQ는 문항 내 “종종”, “이따금”, “때때로” 등을 사용하여 타인이 특정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만 측정하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인해 응답자의 욕구가 얼마나 지지 혹은 좌절되었는지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존 척도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occhi, Pelletier, Cheung, Baxter와 Beaudry(2017a)이 개발한 대인관계 행동 척도(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IBQ)를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와 관련한, 욕구-지지적인(need-supportive) 대인관계 행동 그리고 욕구-좌절적인(need-thwarting) 대인관계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총 6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Chen et al., 2015; Deci & Ryan, 2000; Rocchi et al., 2017a): 자율성-지지(autonomy-supportive; AS), 자율성-좌절(autonomy-thwarting; AT), 유능감-지지(competence-supportive; CS), 유능감-좌절(competence-thwarting; CT), 관계성-지지(relatedness-supportive; RS), 관계성-좌절(relatedness-thwarting; RT). 먼저, 자율성-지지 행동 하위척도는 타인의 행동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주도성을 느끼게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에게 선택권과 근거를 제공하고, 나의 관점을 인정하며, 내가 주도성 있게 행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대인관계 행동을 포함한다(Deci & Ryan, 2000; Mageau et al., 2015).

둘째, 자율성-좌절 행동 하위척도는 타인의 억압적, 강요적 혹은 강제적 행동이 나의 자율성을 얼마나 좌절시키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나에게 외적인 보상이나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나 조건적인 대인관계 행동을 포함한다(Bartholomew, Ntoumanis, & Thorgenson-Ntoumani, 2009). 셋째, 유능감-지지 행동 하위척도는 타인의 행동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유능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나의 성장을 인정하며, 내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등의 대인관계 행동을 포함한다(Sheldon & Filak, 2008). 넷째, 유능감-좌절 행동 하위척도는 나의 무능력에 초점 맞추어 잘못을 강조하고, 어려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고, 무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향상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등의 대인관계 행동을 포함한다(Sheldon & Filak, 2008). 다섯째, 관계성-지지 행동 하위척도는 타인의 행동을 나로 하여금 얼마나 관계성을 느끼게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돌보며, 관심을 가지는 등의 대인관계 행동을 포함한다(Jones, Armour, & Potrac, 2004). 마지막으로, 관계성-좌절 행동 하위척도는 나와 거리를 두며, 감정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며,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 등의 대인관계 행동을 포함한다(Sheldon & Filak, 2008).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욕구-지지적인 환경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성장과 안녕감을 촉진하는 반면, 욕구-좌절적인 환경은 기본 심리적 욕구 좌절,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 불행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rtholomew et al., 2011; Vansteenkiste & Ryan, 2013). 예를 들어, 한소영과 신희천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에서 욕구-지지적인 환경은 내담자에게 욕구 만족을 경험하게 하고, 이는 상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직장 내 욕구-지지적인 환경은 직무 만족감을 높이고(조준희, 홍아정, 2011; Gagné, & Deci, 2005), 운동선수들에게 지지적인 환경은 신체적 안녕감과 성장 동기를 높이며(박중길, 2009; 양명환, 김덕진, 2010; Assor, Vansteenkiste, & Kaplan, 2009; Gagne, 2003), 지지적인 양육 환경은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공감능력을 향상하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도연, 2010; Luyckx, Vansteenkiste, Goossens, & Duriez, 2009; Miklikowska, Duriez, & Soenens, 2011). 이와 반대로, 부모의 통제된 행동과 같은 욕구-좌절적인 행동은 자녀의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불안, 또래 문제를 초래하고(마은애, 손은정, 2014; Soenens et al., 2008), 통제적인 교수 방법은 학생의 기본 심리적 욕구를 좌절시키며 낮은 참여 동기나 불안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명수, 장보경, 2016; Yli-Piipari, Watt, Jaakkola, Liukkonen, & Nurmi, 2009).

IBQ를 스포츠 영역으로 확장한 연구(Rocchi, Pelletier & Desmarais, 2017b; Rodrigues et al., 2019)에서는 코치의 지지적인 행동은 자율적인 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좌절적인 행동은 통제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코치의 유능감-좌절적인 행동과 관계성-좌절적인 행동은 운동선수에게 자율적인 동기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통제된 동기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occhi et al., 2017b).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서양 문화권에서만 반복되는 결과는 아니다. 일본에서도 IBQ를 일반적인 대인관계와 중요한 대인관계인 아버지, 어머니, 친구관계에서 타당도 확장하여 연구

하였다(Xiao & Toyama, 2020). 일본판 IBQ에서도 6요인 구조를 보이며 욕구 지지적인 행동은 안녕감(Well-being)에 정적 상관을 욕구 좌절적인 행동은 불행감(ill-being)에 정적 상관을 동일하게 보였다. 즉, 동양 문화권에서도 반복되는 결과로 욕구 지지와 좌절의 보편적 관점을 반복해서 증명하는 것이다(Chen et al., 2015). IBQ는 인지한 행동 자체를 측정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Rocchi와 Pelletier(2018)의 연구에서는 코치 본인의 대인관계 행동과 운동선수가 지각한 코치의 행동간의 차이 정도를 보았으며, 차이에 따라 욕구 만족과 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만일 의견이 일치하면 욕구 지지적인 행동은 욕구 만족을 욕구 좌절적인 행동은 욕구 좌절을 예측하였다. 반면 의견 간 차이가 있다면 본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코치와 함께한 운동선수가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추가적인 욕구 만족을 느끼고 욕구 좌절은 덜 느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기존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는 욕구 좌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거나, 행동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을 혼합해서 측정하는 등의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IBQ를 번역-역 번역 절차를 통해 번안 후, IBQ의 구성 타당도와 6요인의 모형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특히, Rocchi 등(2017a)의 연구와 동일하게 6요인들이 개별적인 구성개념인지(6요인 모형) 아니면 기본 심리적 욕구의 3요인(3요인 모형)으로 구성되는지 혹은 지지-좌절 측면의 연속선상으로 존재하는지(2요인 모형) 살펴보았다. 또한 Chen 등(2015)의 연구와 같이, 영역 특정한 요인과 일반적인

요인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second-order 모형(욕구 지지-좌절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상위위계로 한 second-order 2요인 모형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3요인을 상위 위계로 한 second-order 3요인)도 함께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second-order 모형은 상위요인에 따라 특정한 하위요인이 묶임으로써 하위요인 간의 관련성을 상위요인이 설명하는 구조를 의미한다(Chen, West & Sousa, 2006). 즉,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구조모형을 비교하였다. 또한 IBQ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IBQ와 BPNS-interpersonal relationship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준거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IBQ와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삶의 만족, 주관적 활력 척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인터넷 설문지를 통해 수도권 소재의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수도권 소재의 대학 심리학 수업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추가 모집하였다. 수집된 271개의 자료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아닌 사람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12개의 설문을 제외한 259개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 중 여성은 127명(49%), 남성은 132명(51%)이었으며 나이는 만 18세에서 45세였다($M=23.38$, $SD=4.38$).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수도권의 대학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수업 평가에 관여하지 않는 연구자 1인이 수업 외 시간에 설문지를 배부 및 수집하였다. 256개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0개의 설문을 제외한 246개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 중 여성은 136명(55.3%), 남성은 110명(44.7%)이었으며, 나이는 만 18세부터 43세까지였다($M=22.72$, $SD=2.99$). 윤리적 규정에 따라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은 없었고, 설문지에 응답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연구 절차

먼저, IBQ를 개발한 제 1저자(Merdith Rocchi)로부터 번안과 타당화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한 이중언어자인 상담심리 석사과정 학생과 상담심리 교수의 도움을 받아 IBQ를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다음으로, IBQ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중언어자인 임상심리사 석사과정 학생에게 역 번역을 하도록 한 다음, 본 연구자와 상담심리 교수가 한국어판 척도와 원척도를 대조하여 문항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한에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5명에게 한국어판 척도와 원척도의 유사성을 5점 척도(1점 “전혀 동일하지 않음”부터 5점 “완전히 동일함”)로 평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 평균 4점이 확인되었다. 4점 이하를 받은 문항 그리고 국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모호한 문항을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로 상담심리 교수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측정 도구

대인관계 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번안 및 타당화한 대인관계 행동 척도(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IBQ)는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지지하는지 혹은 좌절시키는지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cchi 등(2017a)이 개발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24개 문항, 6개의 하위요인, 즉, 기본 심리적 욕구의 3가지 유형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지지와 좌절을 토대로 자율성-지지(AS), 자율성-좌절(AT), 유능감-지지(CS), 유능감-좌절(CT), 관계성-지지(RS), 관계성-좌절(RT)로 구성되어 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으로 시작하는 각 문항은 7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Rocchi 등(2017a)에 따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이라는 표현은 특정 사회적 상황에 한정되지 않기 위해 사용되었다. Rocchi 등(2017a)의 연구에서 IBQ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자율성-지지(AS)는 .81, 자율성-좌절(AT)은 .77, 유능감-지지(CS)는 .75, 유능감-좌절(CT)은 .77, 관계성-지지(RS)는 .79, 관계성-좌절(RT)은 .81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검사 신뢰도는 자율성-지지(AS)은 .88, 자율성-좌절(AT)은 .88, 유능감-지지(CS)는 .82, 유능감-좌절(CT)은 .84, 관계성-지지(RS)는 .87, 관계성-좌절(RT)은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본 연구에서는 IBQ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소영, 신희천(2009)이 개발하고 소은희(2009)가 수정한 대인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interpersonal relationships; BPNS-interpersonal relationship)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BPN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의 문항에서 사용한 “부모와의 관계에서~라고 느낀다.”라는 지시 어구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라고 느낀다.”로 수정하여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기본심리적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자율성(예. 내 영역이 유지된다고 느껴진다), 유능감(예. 내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관계성(예. 깊은 교감이 느껴진다)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소은희(2009)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4, 자율성 .84, 유능감 .92, 관계성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96, 자율성 .87, 유능감 .95, 관계성 .94로 나타났다.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

본 연구에서는 IBQ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개발하고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적 정서(예. 열정적인, 활기찬)와 부정적 정서(예. 두려운, 괴로운)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현희 외(2003)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4, 정적 정서 .84, 부정적 정서 .87인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82, 정적 정서 .86, 부정적 정서는 .88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척도

본 연구에서는 IBQ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 (1985)이 개발하고 조명한, 차경호(1998)이 번안한 삶의 만족척도(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예.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매우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주관적 활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IBQ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Ryan과 Frederick(1997)이 개발하고 권석만(2008)이 제시하고 김석일(2009)이 사용한 주관적 활력 척도(Subjective Vitality Scale; SV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예. 나는 에너지가 많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생동감과 활력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석일(2009)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IBQ 척도 24개 문항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KMO (Kaiser-Meyer-Olkin)와 Barlett 구형성 지표 (Barlett's Test of Sphericity)를 살펴본 결과, KMO의 적합성 지수는 909, Barlett의 구형성 지표는 $\chi^2(276)=3990.478(p<.001)$ 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양병화, 1998). 이에 주축요인분석과 사교회전(Direct oblimin)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값(eigenvalue)과 스크리도표(screen plot; 그림 1 참조) 그리고 원척도의 하위요인이 6개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판 IBQ의 요인 수를 6개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요인수를 6개로 고정하고 주축요

인과 사교회전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 .40미만, 둘 이상의 요인에서 부하량 .32 이상인 문항,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이하인 문항, 공통성 (community)이 .30~.40이하인 문항이 없어 제거할 문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유연재 2011; 유연재, 김완석, 2014). 따라서 한국판 IBQ는 총 24개의 문항,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요인 1은 원척도의 '관계성-좌절(RT)' 요인의 4 문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한국어판에서도 요인 명을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9.33로 전체 변량의 38.86%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원척도의 '유능감-좌절(CT)' 요인의 4문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한국어판에서도 요인 명을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2.04로 전체 변량의 8.52%를 설명하였다. 요인 3은 원척도의 '자율성-지지(AS)' 요인의 4문항을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한국어판에서도 동일하게 요인 명을 명명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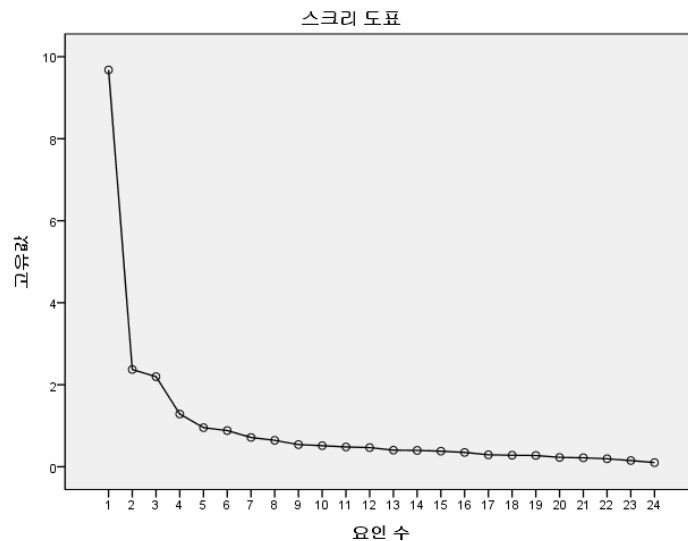


그림 1. IBQ Scree plot

표 1. IBQ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의 요인부하량, 공통성, 및 신뢰도 계수

문항	1	2	3	4	5	6	b^2
요인 1 : 관계성-좌절(RT)							
21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	.41						.38
22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거리를 둔다.	.70						.64
23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66						.77
24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52						.57
요인 2 : 유능감-좌절(CT)							
13 내가 실패할 거라고 말한다.		.51					.54
14 내가 무능력하다는 메시지를 나에게 보낸다.		.54					.59
15 과연 나에게 발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85					.74
16 과연 나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82					.76
요인 3 : 자율성-지지(AS)							
1 나에게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52				.47
2 나의 결정을 지지한다.			.92				.90
3 나의 선택을 지지한다.			.88				.84
4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한다.			.70				.61
요인 4 : 유능감-지지(CS)							
9 나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격려한다.				.66			.55
10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55			.44
11 내가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다.				.76			.67
12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나에게 말해준다.				.68			.68
요인 5 : 자율성-좌절(AT)							
5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한다.					-.71		.63
6 그들의 의견을 나에게 강요한다.					-.81		.71
7 나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83		.73
8 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54		.52
요인 6 : 관계성-지지(RS)							
17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71	.61
18 나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낸다.						.83	.66
19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진심으로 즐긴다.						.61	.68
20 나를 이해한다.						.64	.60
설명변량(%)	38.86	8.52	7.80	3.85	2.65	2.04	
누적 설명변량(%)				63.72			

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87로 전체 변량의 7.80%를 설명하였다. 요인 4는 원척도의 ‘유능감-지지(CS)’ 요인의 4문항을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한국어판에서도 동일하게 요인 명을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92로 전체 변량의 3.85%를 설명하였다. 요인 5는 ‘자율성-좌절(AT)’ 요인의 4문항을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한국어판에서도 동일하게 요인 명을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64로 전체 변량의 2.65%를 설명하였다. 요인 6은 원척도의 ‘관계성-지지(RS)’ 요인의 4문항을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한국어판에서도 동일하게 요인 명을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49로 전체 변량의 2.04%를 설명하였다.

신뢰도 분석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척도 전체 IBQ는 .93, 하위척도는 자율성-지지(AS)는 .89, 자율성-좌절(AT)은 .87, 유능감-지지(CS)는 .83, 유능감-좌절(CT)은 .87, 관계성-지지(RS)는 .86, 관계성-좌절(RT)은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6개 하위요인, 24문항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6요인 모형과의 비교를 위해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욕구-지지적 행동과 욕구-좌절적 행동으로 구성된 2요인 모형, 자율성 행동, 유능감 행동, 관계성 행동으로 구성된 3모형 그리고 second-order 2요인과 second-order 3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6

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CFI=.922, TLI=.909, RMSEA=.067로 다른 모형들에 비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CFI와 TLI는 .90이상 RMSEA의 경우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로, Second-order 2요인 및 3요인 모형도 좋은 적합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자승 차이 검증(Bentler & Bonett, 1980)을 실시하였다. 6요인 모형의 적합도와 다음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인 second-order 2요인 모형을 카이자승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6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chi^2_{df}(8)=20.348>.05$).

타당도 검증

수렴 및 변별 타당도

IBQ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비교 준거로 IBQ와 대인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BPNS-Interpersonal relationships)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IBQ의 자율성-지지, 유능감-지지, 관계성-지지는 각각 BPNS-Interpersonal relationship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자율성-좌절, 유능감-좌절, 관계성-좌절은 각각 BPNS-Interpersonal relationship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BQ의 수렴 및 변별 타당화를 검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준거 관련 타당도

IBQ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IBQ와 PANAS의 두 하위요인(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SWLS 그리고 SVS간의 상관분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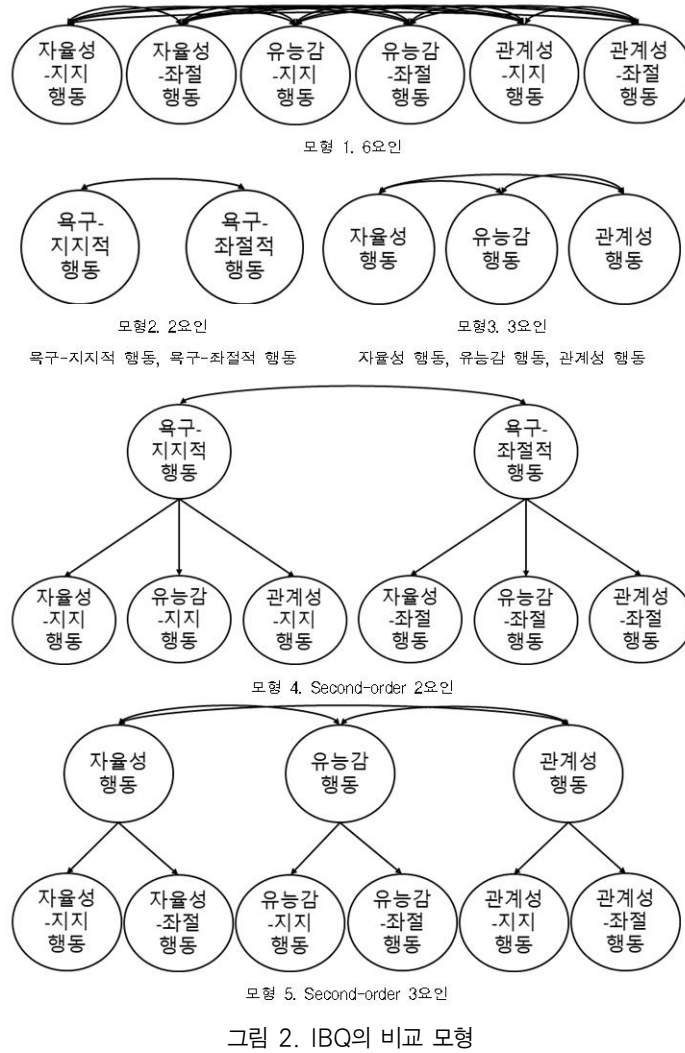


그림 2. IBQ의 비교 모형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결과

모형	X^2	df	CFI	TLI	RMSEA
6요인	501.078***	237	.922	.909	.067
2요인	1322.033***	251	.683	.651	.132
3요인	1491.115***	249	.632	.593	.143
second-order 2요인	521.426***	245	.918	.908	.068
second-order 3요인	586.971***	243	.898	.884	.076

주. *** $p < .001$

표 3. IBQ와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척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자율성-지지	1													
2. 자율성-좌절	-.41**	1												
3. 유능감-지지	.53**	-.35**	1											
4. 유능감-좌절	-.34**	.54**	-.41**	1										
5. 관계성-지지	.53**	-.34**	.58**	-.33**	1									
6. 관계성-좌절	-.36**	.52**	-.36**	.62**	-.46**	1								
7. IBQ	.71**	-.69**	.76**	-.73**	.75**	-.74**	1							
8. 자율성	.49**	-.37**	.41**	-.38**	.53**	-.40**	.58**	1						
9. 유능감	.44**	-.25**	.42**	-.34**	.51*	-.30**	.52**	.68**	1					
10. 관계성	.41**	-.25**	.41**	-.30**	.61**	-.44**	.55**	.68**	.69**	1				
11. 정적 정서	.22*	-.01	.24**	-.12	.30**	.00	.20**	.34**	.48**	.30**	1			
12. 부적 정서	-.20**	.27**	-.16**	.27**	-.17**	.29**	-.31**	-.29**	-.27**	-.28**	.01	1		
13. SWLS	.42**	-.21**	.36**	-.32**	.41**	-.24**	.44**	.44**	.60**	.48**	.41**	-.28**	1	
14. SVS	.27**	-.06	.30*	-.14*	.35**	-.15*	.29**	.38**	.53**	.41**	.64**	-.10	.48**	1
평균	5.66	2.92	5.41	2.20	5.19	2.39	5.15	5.26	4.98	5.17	2.64	2.27	4.47	2.80
표준편차	.75	1.08	.90	1.07	.91	1.07	.58	.86	1.12	1.03	.75	.76	1.16	.94
왜도	-.79	.43	-1.15	1.17	-.51	.79	-.73	-.66	-.52	-.81	-.05	.45	-.32	.16
첨도	.97	-.60	2.12	1.17	.82	.33	1.59	.81	.24	.64	-.66	-.58	-.12	-.49

주. * $p < .05$, ** $p < .01$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IBQ의 자율성-지지, 유능감-지지, 관계성-지지는 PANAS의 정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IBQ의 자율성-좌절, 유능감-좌절, 관계성-좌절은 PANAS의 정적 정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PANAS의 부적 정서의 경우, 자율성-지지, 유능감-지지, 관계성-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자율성-좌절, 유능감-좌절, 관계성-좌절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지지, 유능감-지지, 관계성-지지는 SWLS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자율성-좌절, 유능감-좌절, 관계성-좌절은

SWLS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SVS의 경우, 자율성-지지, 유능감-지지, 관계성-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유능감-좌절, 관계성-좌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율성-좌절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지난 몇십 년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이론으로, 특히 이 이론에서 제안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만족은 대인관계와 심리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한소영, 신희천, 2010). 또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척도가 개발되었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척도와 달리 욕구 만족과 욕구 좌절을 구분하고 대인관계 맥락에서 욕구-지지적인 대인관계 행동과 욕구-좌절적인 대인관계 행동을 측정하는 IBQ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요인구조,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준거 타당도 및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판 IBQ는 원척도 IBQ와 동일하게 6요인의 구조가 도출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원척도 IBQ의 6요인 모형,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으로 구성된 3요인 모형, 욕구 지지-좌절로 구성된 2요인 모형, 욕구 지지와 욕구 좌절을 상위 위계로 한 second-order 모형, 그리고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상위 위계로 한 second-order 모형을 비교 검증하였다. 그 결과, 원척도 IBQ 요인구조 및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6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IBQ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IBQ와 비슷하게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좌절을 측정하는 척도인 BPNSFS(Chen et al., 2015)와 일본판 BPNSFS(Nishimura & Suzuki, 2016)도 6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일맥상 통한다. 또한, BPNSFS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Chen 등(2015)의 연구에서도 3요인 모형과 6

요인 모형을 비교한 결과, 6요인 모형이 3요인 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Nishimura와 Suzuki(2016)의 연구에서도 2요인 모형, 3요인 모형, 6요인 모형, 위계모형을 비교했을 때, 6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한국판 BPNSFS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이진현(2016)의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second-order 모형을 고려하여, 2요인 모형, 3요인 모형, second-order 2요인 모형, second-order 3요인 모형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second-order 3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6요인 모형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6요인 모형과 second-order 3요인 모형을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second-order 3요인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함으로써, 욕구 만족과 욕구 좌절이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재확인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한국판 IBQ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한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유사 척도인 한소영, 신희천(2009)이 개발하고 소은희(2009)가 수정한 BPSN-Interpersonal relationships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BPSN-Interpersonal relationships는 대인관계에서의 욕구 만족과 욕구 좌절을 구분하지 않고 욕구 만족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한국판 IBQ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불가하지만, 상관분석 결과 한국판 IBQ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지지적인 행동은 BPSN-interpersonal relationships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PSN-Interpersonal relationships가 대인관계에서 욕구 만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된 결과이며, 한국판 IBQ의 수렴타당

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판 IBQ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좌절적인 행동은 BPSN-interpersonal relationships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었는데, 가령, IBQ와 욕구 만족/좌절 척도를 비교한 Rochhi 등(2017b)의 연구에서도 욕구 지지적인 행동이 욕구 좌절적인 행동보다 욕구 만족 척도와 더 높은 상관이 있지만, 욕구 좌절적인 행동이 욕구 지지적인 행동보다 욕구 좌절 척도와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간접적으로 한국판 IBQ의 변별타당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 욕구 만족과 욕구 좌절의 차별적 영향력이 밝혀진 만큼(Bartholomew et al., 2011; Costa et al., 2015; Sheldon & Filak, 2008), 기존의 BPSN-Interpersonal relationships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욕구 만족과 욕구 좌절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한국판 IBQ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IBQ의 준거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한국판 IBQ는 심리적 적응의 지표와 심리적 부적응의 지표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 연구(Chen et al., 2015; Chirkov & Ryan, 2001; Sheldon, 2011)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한국판 IBQ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지지적인 행동은 정적 정서, 삶의 만족, 주관적 활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좌절적인 행동은 부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반대로, 한국판 IBQ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지지적인 행동은 부적 정

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지만, 한국판 IBQ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좌절적인 행동은 삶의 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관련하여, 주목할 결과는 한국판 IBQ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좌절적인 행동은 정적 정서와 유의한 상관이 없고, 주관적 활력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약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욕구 지지/욕구 좌절 척도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결과이다. Rochhi 등(2017a)의 연구에서도 욕구 지지적인 행동은 심리적 부적응 지표보다 심리적 적응지표에 더 높은 상관을 보이며, 욕구 좌절적인 행동은 심리적 적응지표보다 심리적 부적응 지표에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BPNSFS를 타당화한 다양한 나라들의 연구(이진현, 2016; Chen et al., 2015; Nishimura & Suzuki, 2016)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욕구 지지는 심리적 적응 지표에 욕구 좌절은 심리적 부적응 지표에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욕구 지지적인 행동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욕구 좌절적인 행동이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욕구 지지와 욕구 좌절이 독립적인 개념임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판 IBQ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욕구 지지와 욕구 좌절과 관련한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는 지표의 내용적 측면과 일반화의 측면에서 여러 한계점이 있다. 일차적으로 참여자 표집과정이 수도권 소재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한정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다양한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표본에

대해 타당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등에 따라 한국판 IBQ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IBQ의 준거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PANAS, 삶의 만족 및 활력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PANAS가 측정하는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는 순간순간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개념이지만(이현희 등, 2003) 한국판 IBQ가 측정하는 대인관계와 행동은 장기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PANAS외에 더 장기적인 결과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PANAS의 부정 정서와 더불어 다른 심리적 부적응의 지표를 사용하여 욕구 좌절적인 행동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욕구 지지적인 행동과 욕구 좌절적인 행동 간의 차이점에만 주목하여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차별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관련한 행동이 어떠한 다른 결과를 야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시행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한국판 IBQ의 second-order 2요인과 3요인의 적합도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IBQ의 요인구조에 관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IBQ를 사용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다양한 유형의 관계에서 욕구 지지적인 혹은 욕구 좌절적인 행동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판 IBQ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 감독(코치)-운동선수 관계, 교사-학생 관계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 측정하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이 어떤 욕구를 지지 혹은 좌절시키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판 IBQ는 상담 장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가령, 상담자는 한국판 IBQ의 문항을 토대로 내담자가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는 타인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리고 그 타인의 행동과 내담자의 욕구 만족/좌절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담자-내담자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한국판 IBQ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욕구를 지지하거나 좌절시키는 상담자의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내담자가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는지, 혹은 이러한 과거 경험이 전이(transference)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상담 작업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와 대인관계 패턴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충족하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IBQ를 연구나 상담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일차적으로 아직 한국판 IBQ는 한국의 일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cut-off)이나 특정 점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구자나 상담자는 한국판 IBQ의 점수를 평가나 진단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내담자의 대인관계, 욕구 등을 탐색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한국판 IBQ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6요인 모형을 토대로, 즉 욕구 지지적인 행동과 욕구 좌절적인 행동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각각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장희, 안도희 (2015).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 기본심리욕구 및 학교 참여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11), 21-44.
- 권석만 (2008). *긍정 심리학*. 학지사.
- 김도연 (2010). 지각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석일 (2009).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활력과 미래에 대한 낙관성 및 희망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3), 195-205.
- 김시정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의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남 (2006). *어른으로 산다는 것*. 파주: 갤러온.
- 마은애, 손은정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욕구 좌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5(5), 2035-2051.
- 박중길 (2009). 지각된 코치-선수 관계, 욕구만족, 신체적 및 심리적 안녕감: 개인내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4), 177-191.
- 소은희 (2009). *감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매개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환, 김덕진 (2010).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행동과 운동동기와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3), 217-231.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유연재 (2011). 소비자의 혁신저항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 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2(1), 191-216.
- 유연재, 김완석 (2014). 마음챙김 소비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 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5(2), 307-331.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민희 (2007). *학습장면에서 자기결정론의 동기화 경로 모형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희, 정태연 (2009). 욕구만족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1), 267-277.
- 이진현 (2016). *기본심리욕구 만족-좌절 척도(BPNFSFS)의 한국 타당화 연구*. 용문상담심리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

- 946.
- 임지영, 김지현 (2015). 상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개발-자기결정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 이론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6(2), 231-262.
- 전유미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타인-중심성 도식, 기본심리 욕구충족의 좌절, 관계중독의 역할.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교영, 신희천 (2010). 아동용 어머니-자녀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753-775.
- 정교영, 신희천 (2011a).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03-634.
- 정교영, 신희천 (2011b). 한국판 부모 양육행동 척도(Korean-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K-PSC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287-1305.
- 정명수, 장보경 (2016). 인문, 사회과학편: 체육 수업에서 지각된 욕구통제와 욕구좌절, 과제참여와의 관계. *한국 체육학회지-인문 사회과학*, 55(1), 179-190.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준희, 홍아정 (2011). 조직활성화 교육이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역량개발학습연구(구 한국HRD 연구)*, 6(2), 65-80.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464.
- 한소영, 신희천 (2010).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경험과 상담성과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901-929.
- 한송이, 장석진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 심리욕구충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459-479.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ssor, A., Vansteenkiste, M., & Kaplan, A. (2009). Identified versus introjected approach and introjected avoidance motivations in school and in sports: The limited benefits of self-worth striving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2), 482-497
- Bartholomew, K. J., Ntoumanis, N., & Thøgersen-Ntoumani, C. (2009). A review of controlling motivational strategies from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sports coaches.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2), 215-233.
- Bartholomew, K. J., Ntoumanis, N., Ryan, R. M., Bosch, J. A., & Thøgersen-Ntoumani, C. (2011).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diminished functioning: The role of interpersonal control and psychological need thwar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11), 1459-1473.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 Bulletin*, 88(3), 588-606.
- Chen, B., Vansteenkiste, M., Beyers, W., Boone, L., Deci, E. L., Van der Kaap-Deeder, J., Mouratidis, A., Ryan R. M., Sheldon, K. M., Soenens, B., Petegem, S. V., & Verstuyf, J (2015).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need frustration, and need strength across four cultures. *Motivation and Emotion*, 39(2), 216-236.
- Chen, F. F., West, S. G., & Sousa, K. H. (2006). A comparison of bifactor and second-order models of quality of life.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1(2), 189-225.
- Chirkov, V. I., & Ryan, R. M. (2001). Parent and teacher autonomy-support in russian and US adolescents: Common effects on well-being and academic motiv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5), 618-635.
- Costa, S., Ntoumanis, N., & Bartholomew, K. J. (2015). Predicting the brighter and darker sid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oes psychological need thwarting matter?. *Motivation and Emotion*, 39(1), 11-24.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3-33.
- Deci, E. L., & Vansteenkiste, M. (2004).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basic need satisfaction: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in positive psychology. *Ricerche di Psicologia*, 27(1), 17-34.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Gagne, M., (2003). Autonomy support and need satisfaction in the motivation and well-being of gymnast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5(4), 372-390.
- Gagné, M., & Deci, E. L. (2005).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work motiv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4), 331-362.
- Haerens, L., Aelterman, N., Van den Berghe, L., De Meyer, J.,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3). Observ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s' need-supportive interactions in classroom setting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5(1), 3-17.
- Jones, R. L., Armour, K. M., & Potrac, P. (2004). *Sports coaching cultures: From practice to theory*. Psychology Press.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uyckx, K., Vansteenkiste, M., Goossens, L., & Duriez, B. (2009). Basic need satisfaction and identity formation: Bridging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process-oriented identity research.

-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276-288.
- Mageau, G. A., Ranger, F., Joussemet, M., Koestner, R., Moreau, E., & Forest, J. (2015). Validation of the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scale (P-PAS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47(3), 251-262.
- Miklikowska, M., Duriez, B., & Soenens, B. (2011). Family roots of empathy-related characteristics: The role of perceived maternal and paternal need support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7(5), 1342-1352.
- Nishimura, T., & Suzuki, T. (2016).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frustration in Japan: Controlling for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58(4), 320-331.
- Rodrigues, F., Pelletier, L., Neiva, H. P., Teixeira, D. S., Cid, L., & Monteiro, D. (2019). Initial validation of the Portuguese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Behavior Questionnaire (IBQ & IBQ-Self) in the context of exercise: Measurement invariance and latent mean differences. *Current Psychology*, 1-12.
- Rocchi, M., Pelletier, L., Cheung, S., Baxter, D., & Beaudry, S. (2017a). Assessing need-supportive and need-thwarting interpersonal behaviours: The 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IBQ).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104, 423-433.
- Rocchi, M., & Pelletier, L. (2018). How does coaches' reported interpersonal behavior align with athletes' perceptions? Consequences for female athletes' psychological needs in sport.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7(2), 141.
- Rocchi, M., Pelletier, L., & Desmarais, P. (2017b). The validity of the Interpersonal Behaviors Questionnaire (IBQ) in sport.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and exercise science*, 21(1), 15-25.
- Rowe, C. A., Walker, K. L., Britton, P. C., & Hirsch, J. K.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life events and suicidal behavior. *Crisis*, 34, 233-24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an, R. M., & Frederick, C. (1997). On energy, personality, and health: Subjective vitality at a dynamic reflection of well being. *Journal of Personality*, 65(3), 529-565.
- Sheldon, K. M. (2011). Integrating behavioral-motive and experiential-requiremen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needs: A two process model. *Psychological Review*, 118(4), 552-569.
- Sheldon, K. M., & Filak, V. (2008). Manipulating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support in a game learning context: New evidence that all three needs matte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2), 267-283.
- Soenens, B., Luyckx, K.,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8).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n interviewing variable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 22(3), 465-474.
- Van den Berghe, L., Soenens, B., Vansteenkiste, M., Aelterman, N., Cardon, G., Tallir, I. B., & Haerens, L. (2013). Observed need-supportive and need-thwarting teaching behavior in physical education: Do teachers' motivational orientations matter?.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4*(5), 650-661.
- Vansteenkiste, M., & Ryan, R. M. (2013). On psychological growth and vulner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need frustration at a unifying principle.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3*(3), 263-280.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Xiao, Y., & Toyama, M. (2020). Development of a Japanese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Th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90*(6), 581-591.
- Yli-Piipari, S., Watt, A., Jaakkola, T., Liukkonen, J., & Nurmi, J. E. (2009).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education students' motivational profiles, enjoyment, state anxiety, and self-reported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Sports Science & Medicine, 8*(3), 327-336.

원 고 접 수 일 : 2020. 02. 03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4. 06

게 재 결 정 일 : 2020. 05. 26

A Validation Study of Korean Version of 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Jiyeong Ryu

Heecheon Shin

Eunha Kim

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Master

Professor

Professo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troduce need-supportive interpersonal behaviors and need-thwarting interpersonal behaviors, which are based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to translate and validate a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IBQ). The IBQ assesses the perceptions of other's autonomy-supportive, competence-supportive, and relatedness-supportive interpersonal behaviors; as well as autonomy-thwarting, competence-thwarting, and relatedness-thwarting interpersonal behaviors.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BQ (N=259), per 4 items, 6-factor model was determined. Next, a serie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N=246) supported the goodness of fit of the 6-factor structure. A validation test supporte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dditionally, need-supportive interpersonal behaviors correlated with well-being indicators, while need-thwarting interpersonal behaviors correlated with ill-being indica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BQ. Limitation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Basic Psychological Needs, Need-Supportive behaviors, Need-Thwarting behaviors, Interpersonal Behavior